



미국장로교(PCUSA)의
믿음의 정신과
결혼의 정의에 대한 이해

F A I T H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미국장로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 준 교단이며, 이후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제공해 준 교단이다.

언더우드 (Horace Underwood), 마포삼열 (Samuel Moffett), 배위량 (William Baird)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자신의 20대와 그 이후 한평생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그 삶을 바쳐 헌신하였다.

이들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세브란스 병원, 평양신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 송실대학교, 새문안교회(정동교회, 한국기독교 최초의 조직교회), 장대현교회(평양 부흥 운동의 산실), 정신여고,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전주 예수병원, YMCA, 기독교서회 등 일일이 그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는 많은 교회와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기독교와 사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

미국장로교가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공헌한 인적/물적 자원은 현대 한국 사회의 초석이 되었다. 그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를 통해 한국 역사와 사회의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병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치유되었다. 현재 연지동에 있는 한국 기독교 100 주년 기념관 역시 미국장로교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기증한 대지 위에 세워지는 등 한국의 초기기독교부터 지금까지 미국장로교와 한국 기독교는 그 역사적이고 신학적 전통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는 형제 교단이다.



먼저,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동성간의 결혼의 문제는 1983년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하나로 연합하기 전 1970년대부터 수면 위로 등장한 이슈였다. 거의 40년의 논쟁 끝에...

지난 2014년 미국장로교 제 221회 총회(Detroit)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라는 문구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라는 문구로 결혼에 관한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결혼을 “두 사람 사이의 서약 (commitment between two people)”으로 정의한 포괄성(包括性)에 있다.

현재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 내 모든 한인 교회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법적, 사회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미국장로교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 헌법 제 1조와 같이 목사와 당회가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 근거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다.



결혼예식에 관한 미국장로교의 **핵심정책**은 아래와 같다.

W-4.9006

“Nothing herein shall compel a teaching elder to perform nor compel a session to authorize the use of church property for a marriage service that the teaching elder or the session believes is contrary to the teaching elder’s or the session’s discernment of the Holy Spirit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Book of Order)

“목사나 당회가 성령의 분별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에 관해 내리는 목회적 결정에 대하여, 그 누구도 목사의 결혼 집례를 강요할 수 없고 또한 당회의 결혼을 위한 교회 건물 사용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

미국장로교는

목사와 당회가 전통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적 자유**를 보장하며, 우리 믿음의 자유는 이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다.

이런 핵심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장로교의 **2 개의 기본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Book of Order)의 첫 부분에 적혀있는
선교 및 교회정치 원리 속에는

개혁신앙의 전통과 신앙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의 기본정신이 기초가 되고 있다.

(1) 개혁신앙의 전통

F-2.05 The Confessions as statements of the Faith of the Reformed Tradition

개혁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In its confessions, the Presbyterian Church (U.S.A.) expresses the faith of the Reformed tradition. Central to this tradition is the affirmation of the majesty, holiness, and providence of God who in Christ and by the power of the Spirit creates, sustains, rules, and redeems the world in the freedom of sovereign righteousness and love.” (Book of Order)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개혁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인 공의와 사랑으로 자유로이 이 세상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섭리하심에 대한 확증이고 선언이다.” (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



(2) 신앙양심의 자유

F-3.0101 God Is Lord of the Conscience.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a. That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th left it free from the doctrines and commandments of men which are in anything contrary to his Word, or beside it, in matters of faith or worship.

a.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신앙이나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나 계율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b. Therefore we consider the rights of private judgment, in all matters that respect religion, as universal and unalienable....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Book of Order/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

개혁신앙의 전통과 신앙양심의 자유는

미국장로교의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 가치 아래 한인교회는 믿음의 자유를 보호받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했다.

[참고: 2015 년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결의문]

확고한 예수 구원의 믿음

[인용: <http://www.pcusa.org/news/2016/1/11/wiley-provides-clarification-presbyterian-panel-su/>]

결혼의 정의와 함께 또 하나의 오해는,

“**미국장로교 목사들의 35%만이 예수 구원을 믿는다(?)**”는 오해이다.

이 오해는 “장로교 패널(the Presbyterian Panel)”에서 행한 설문 조사 중 아래와 같은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주: 매년 약 4,000 명의 평신도, 목사, 장로 등이 참여하여 미국장로교의 여러 실천사항과 믿음, 의견 등을 수집하는 설문 조사).

“Only **followers** of Jesus Christ can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미국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며,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다.

그러므로, “따름”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질문(“따름이라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보여질 수 있는)에 대해 미국장로교 목사들이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다수의 언론에 그 왜곡된 정보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설문 원문의 문장을 바꾸어 게재함으로써, 마치 미국장로교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Only **followers** of Jesus Christ can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라는 설문 원래의 문장을 “Christ is the way of salvation.”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라고 교묘히 바꾸었다.

그리고, 그 질문(문구가 조작된)에 대해 35%만이 동의한다는 도표를 만들어 언론과 책자에 게재함으로써, 마치 미국장로교 목사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이들인 것처럼 호도한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2002 년 미국장로교 총회에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미 확고하게 선포한 바 있다.

2006 년 패널 설문조사는 목사의 99%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용: <http://www.presbyterianmission.org/wp-content/uploads/panel12-may2006s.pdf>]

“Salvation rests not in any merit of our own but in the sovereign love of God that has been made known to us in Jesus Christ.”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기초한다.”

(“예”라는 답변: 교인 92%; 장로 94%; **목사 99%**; 특수 사역 97%)

만일, 문제가 된 위의 설문 문항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다”라는 문구였다면, 그에 대한 답은 “예”가 됨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미국장로교의 헌법/규례서(Book of Order)는 **목사의 안수/위임 서약**,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안수 서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문도록 규정하고 있다.

“Do you trust in Jesus Christ your Savior, acknowledge him Lord of all and Head of the Church, and through him believe in o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교회 앞에서 분명히 답하는 사람만이 미국장로교의 목사, 장로, 집사가 될 수 있다.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 없는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참고: NCKPC(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결의문 (2015 년)

1. 우리는 130 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장로교단(PCUSA)과의 선교적 협력 관계에 감사한다.
2. 이 시대를 향하여 열려진 문화적 시각과 더불어 성서적 전통을 고수하기를 결단한다.
3. 교단헌법의 개방성이 반영된 동성 결혼 주례나 시설 사용은 개교회 목사와 당회의 신앙 양심에 따라 불허해야 함을 NCKPC 는 천명한다.
4. 개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노회에서나 한미노회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노력에 더욱 매진한다.
5. 교단의 복음적 단체와 연계하여 교단내에서의 시대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한다.
6. 교단 안팎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편견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교단들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7. 우리는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여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의 부름에 더욱 헌신할 것을 결단한다.

- 제 44 회 NCKPC 전국총회 참석자 일동 (2015. 6. 18)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USA)는 미국장로교 산하에 있는 400 교회 5 만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한인교회들의 총회이다.

NCKPC는 북미주 한인이민교회의 태동기인 1972년에 창립되었으며, 미국의 주류 교단이자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의 선교에 빛진 자로 보내심을 받아 미국 내에서 복음적 신앙과 개혁신학 그리고 에큐메니칼 정신에 토대하여 Korean American 장로교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견지하며, 동시에 교단의 통합적 정신에 충실함으로 창조적 소수자로서 교단 전체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NCKPC는 급변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 문화적 그리고 교회론적 상황 가운데서 제도적 교회의 보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1세대와 차세대 목회자들과 남여 평신도 그리고 청년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육성하는 사명에 힘쓰며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NCKPC는 또한 미국장로교의 영향력 있는 한인 코커스(Caucus)로 다른 여러 인종교회들과 연대하면서 교단의 문화간 변혁(Intercultural Transformation)의 주체로 미국장로교의 갱신에 힘쓰고 있으며, 해외한인장로회(KPCA)와 미국장로교를 연결시켜 함께 동역하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PCK), 한국기독교장로회(PROK), 재일대한국도교회(KCCJ), 해외한인장로회(KPCA) 등과 동역하며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전세계적 선교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발행일: 2017. 4. 25

발행: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미국장로교 총회 한인목회실



이 책자는
미국장로교에서 채택한 결혼의 정의에 관한 이해를 돕고,
미국장로교와 그 안에 속한 한인교회들이
견지하는 믿음의 방향을 밝히고자 제작되었다.